

유성온천문화축제

수신제, 체험부스

얼씨구나! 유성품물한마음대축제

유성문화원 단오제

정기문화답사

현대예술단 위촉식

유성문화원 둘러보기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실버페스티벌

유성의 역사를 찾아서

대전근현대사전시관-유성온천 전성시대

향교의 봄

진잠향교 석전대제

유성의 작가

송대수 작가

유성 북로드(book road)

헬리콥터책방, 마음독립서점

문화유성

2025 Vol.232
www.yuseong.or.kr



02



02 유성온천문화축제
수신제, 체험부스

08



08 열씨구나! 유성풍물한마음대축제

11 유성문화원 단오제

14 정기문화답사

17 현대예술단 위촉식

20 유성문화원 둘러보기
문화로 물든 전시실

23 어르신문화프로그램

25 실버페스티벌

27 유성의 역사를 찾아서
대전근현대사전시관-유성온천 전성시대

29 향교의 봄
진잠향교 석전대제

32 유성의 작가
송대수 작가

35 유성 북로드(book road)
헬리콥터책방, 마음독립서점

14



다시, 물이 흐르다

2025 유성온천 수신제, 온기의 땅에 되살아난 전통

유성문화원 박성혜 기자

㉮ ㉮ 전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성 온천수가 만세토록 영원히 솟구치길 기원합니다. ㉮ ㉮

2025년 5월 2일, 대전 유성 봉명동 온천탑 앞. 봄별이 포근하게 내리쬐던 이 날, 한 줄기 물길에 땅을 적시듯 오래된 제례가 사람들의 마음을 적셨다. '2025 유성온천 수신제'는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성의 뿌리 깊은 역사, 고요히 흐르던 전통, 그리고 다시 피어나려는 공동체의 의지를 상징하는 문화적 울림이었다.

온천수에 담긴 기원, 유성의 정체성을 깨우다.

수신제(水神祭)는 온천의 용출이 끊이지 않기를 기원하는 유성의 대표적인 전통 제례다. 이번 수신제는 유성온천문화 축제 30주년을 기념하여 대전 유성구 및 유성문화원이 주최·주관했다.

행사는 유성의 온천탕에서 직접 떠온 온천 원수를 봉송하는

의식으로 시작됐다. 봉송단이 항아리를 들고 온천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길놀이를 선도했고, 장내가 정돈되는 동안 무용단, 풍물단, 임원단이 정렬해 단체사진을 촬영하며 행사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봉송단이 항아리를 지전 위치에 놓고, 온천수를 제단 앞에서 합수(合水)하는 의식이 이어졌다.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닌, 유성의 자연과 역사, 생명을 상징하는 정화의 매개체였다. 정제된 공간에서 제를 올리는 순간, 유성이라는 지역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뿌리를 다시 붙잡는 시간의 제의를 마주했다.

제의의 미학, 정성과 예로 드리는 의례

제례는 유성구청장 정용래 초헌관의 주재 아래 시작됐다. 먼저 제관들과 제집사들이 손을 씻는 관수세수(灌手洗手) 의식이 진행됐다. 이는 제례를 준비하는 가장 첫 단계로,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여 신에게 예를 다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어서 분향과 참신례(參神禮), 초헌례(축문 낭독), 아헌례, 종헌례, 공헌례 등 제례의식이 엄숙하게 이어졌다. 하늘과 땅, 사람을 향한 기원이 경건하게 낭송되었고, 마무리로는 음복례, 사신례, 망예례를 통해 신과 사람 사이의 교감을 마쳤다.

제례 후, 온천탑 분수에서 물줄기가 힘차게 솟구쳤다. 이는 유성의 생명력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음을 상징하는 장엄한 장면이었다.

예술로 피어난 유성의 정신

행사의 분위기를 고조시킨 것은 바로 전통 예술의 힘이었다. 온천수 봉송 중에는 풍물패의 흥겨운 장단이 거리 곳곳을 울렸고,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온천탑 앞 광장으로 모였다.

무엇보다 강렬했던 장면은 학춤 공연이었다. 유성온천 설화 속 학은 치유, 회복, 부활을 상징한다. 이날 분수대 앞에서 펼쳐진 학춤은 마치 학이 온천수에 날개를 담고 하늘로 날아오르듯, 유성이 다시금 하늘을 향해 비상하려는 희망을 그려냈다.





공동체의 기억, 위기 속에서 되살아나다.

이번 수신제는 단지 제례의 복원이 아닌, 문화 정체성의 회복이자 공동체 재건의 선언이었다. 유성온천은 오랜 세월 지역민의 삶과 함께한 공간이다.

유성온천 놀이, 전통을 품은 민속의 유희

‘유성온천 놀이’는 유성 봉명마을에서 전승되어온 민속 놀이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온천탕을 넓히고 음식을 나누며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집단 노동과 축제의 결합이다.

이 놀이는 토신제, 가래질 농요, 독밧기, 돌쌓기, 새참맥이, 용신제, 대동화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로 흙을 밟아 독을 다지고, 온천탕을 확장하는 모습을 연희 형식으로 표현한다. 이는 노천탕을 넓히는 과정을 전통예술로 형상화한 매우 독창적인 민속 유산이다.

이 유성온천 놀이는 1996년 최문희에 의해 발굴·재현되었고, 충남대 정은혜 교수에 의해 복원되어 전통문화의 계승과 현대적 해석의 훌륭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실천하는 전통, 유성의 미래를 열다

전통은 단지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가 변해도 지켜야 할 정신의 뼈대이며, 공동체가 스스로를 되살릴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2025 유성온천 수신제는 단절된 기억을 잇고, 다시 흐르는 공동체의 물길을 만든 ‘실천하는 전통’의 대표적인 사례다.

오늘도 유성의 온천수는 지하에서 끓고 있다. 그 물이 끊임없이 솟구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리적 자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그 물줄기를 지키고,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 그 기도가 바로 유성 수신제의 진정한 의미이며, 유성의 미래다.



2025 유성온천 문화축제 30주년을 맞이하여

유성문화원 한성희 기자

30주년을 맞이한 유성온천 문화축제는 유성구 온천로 일대와 계룡 스파텔 잔디광장에서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과 주민 참여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였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온천수 분출 기원 및 화합 길놀이, 수신제, 유성 학춤, 온천 수신제와 30주년 거리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온천의 역사와 과학도시’를 주제로 주민, 학생, 문화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즐거움이 가득한 거리 행진을 즐겼습니다.

유성온천 문화축제의 즐거움! 온천수 물총 스피클래쉬는 2개의 대형 워터게이트에서 발사하는 온천수, 신나는 음악과 함께 축제에서 준비한 우비를 입고 물총을 쏘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올해는 유성 온천수 족욕 테마열차로 아로마와 와인으로 족욕하며 오감 만족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와인





족욕을 하면 와인이 한 잔 제공되며 아로마 족욕은 온천수 마스크팩과 뷰티 샘플을 제공하여 특색 있는 체험 부스로 운영하였습니다. 온천수를 활용한 야외수영장과 돔 수영장이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유성 온천수 수영장도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대전대학교 뷰티 디자인학과에서 온천수 뷰티 건강 체험과 개인 맞춤형 색 이미지 진단 체험 부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로 인기가 많은 체험 부스로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축제입니다.

개막식 무대와 함께 700대 드론 라이트 쇼&음악 불꽃쇼는 유성온천의 밤하늘을 아름다운 불빛들로 화려하게 밝히며 밤하늘을 장식했습니다.

과학도시 유성에서 만나는 과학(VR) 체험 부스로 로봇축구부터 베틀 로봇, 집에서 만나는 과학관 메타 플레이리스트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며, 유성온천 문화축제를 찾은 어린 아이들에게 인기 있었던 캐치티니핑 무대도 있어 가족과 함께 방문한 아이들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소중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올해는 저탄소·친환경 축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지구에 살면서 우리는 몰랐던 쓰레기 이야기! 재활용 순환 경제와 재활용을 통한 새로운 변신이라는 주제로 “다 함께 순환 자원 놀 궁리! 알 궁리! 여행” 체험이 있었습니다. 슈퍼 큐브 체험은 캔과 페트병을 투입하고 투입한 만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체험입니다. 또한 페트병 병뚜껑으로 블록 놀이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으로 종이 팩(일반 팩·멸균 팩)은 폐지와 따로 분리배출을 하여 멸균 팩 재활용 제품 등을 알려주는 체험 부스도 있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화용기를 사용하는 축제로 모든 푸드트럭에는 다화용기를 제공하고 회수 및 수거하여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건강한 환경을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친환경 축제와 자원 순환형 축제로 한 걸음 내딛는 축제였습니다. 유성구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하여 탄소중립 화분 만들기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작은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부스도 준비되었습니다.

온천 문화축제에 다양한 체험 부스가 준비되었습니다. 충남대학교 마술동아리에서 마술 체험, 나만의 로봇 만들기 목공 체험, 마을 커뮤니티 공간 “꿈샘”에서 솜사탕 만들기 체험도 이색적이었습니다. 온천수를 이용한 과학 키트 체험으로 온천수로 젤리 램프 만들기와 스노우볼 만들기, 슬라임 만들기도 있어 온천과 과학을 잘 어우러진 체험으로 만들었습니다.

유성문화원도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전통 놀이와 인형극을 진행하였습니다. 인형극에 사용되는 인형과 함께 사진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경험이 녹아든 구연동화와 인형극은 서로 소통하며 재미와 교훈을 주며 어르신들에게 또한 즐거움과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체험입니다.

어르신들의 따뜻한 목소리와 손으로 움직이는 인형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이야기의 또 다른 느낌으로 나이가 들어도 무대에 설 수 있고 감동을 주며 관객과 소통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인형극이 아니라 세대를 잇고 연결하는 인형극

이기도 합니다. 삶의 경험과 지혜를 인형으로 대신 전하며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이끌어가는 인형극 무대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성의 온천 문화축제로 30주년 동안 주민들의 성원과 관심으로 자리 잡은 축제입니다.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축제, 감각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로 남녀노소 함께 즐기며 체험하는 축제로 30주년 축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팝나무꽃이 활짝 필 무렵, 유성 봄꽃 전시회까지 함께한 온천 문화축제는 내년에도 더 풍성한 무대, 아름다운 거리, 다양한 프로그램,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축제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6년에는 유성온천 문화체험관 건립 공사로 인해 변경된 장소에서 새로운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가족, 친구와 함께 소중한 관계의 울타리를 든든하게 추억으로 만드는 축제, 봄에 활짝 피는 꽃처럼 방문한 관람객에게도 마음의 꽃이 활짝 피는 축제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우리 가락 ... 유성에서 펼쳐진 풍물대잔치

유성문화원 이덕성 기자



지난 5월 30일, 유성문화원이 주최한 '유성풍물한마음축제'가 유성구 유림공원 야외무대와 잔디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성구 12개 동 풍물단이 총출동해 선반 3개 팀, 앞은반 6개 팀, 영남가락과 삼도가락을 포함한 3개 팀이 무대에 올라 흥겨운 가락과 함께 전통의 흥을 한껏 펼쳤다.

풍물공연과 함께 진행된 단오제 체험 부스에서는 ▲전통놀이 ▲전통악기 체험 ▲창포물 물총놀이 ▲수박 화채 만들기 ▲수리취떡 만들기 ▲부채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돼 어린이집·유치원생부터 지역 주민까지 약 300여 명이 함께 참여하며 활기찬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축제

행사는 내빈 소개에 이어, 유성문화원 이재웅 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무더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단오를 맞아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로 함께 모일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유성구 12개 동이 함께 준비한 풍물 한마음 축제 및 단오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풍물도 즐기고 전통놀이도 체험하면서 여름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쁜 와중에도 공연과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마음껏 즐기시고 시원한 기운 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재웅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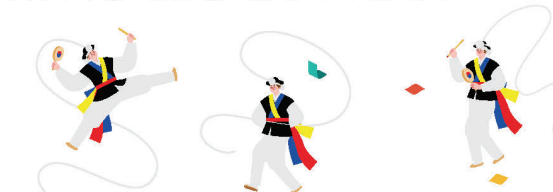


정용래 유성구청장



김동수 유성구의회 의장

이어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오늘은 경쟁 없는 비경쟁 대동제로, 마음껏 즐기고 함께하는 기쁨을 느끼는 날”이라고 인사했고, 김동수 유성구의회 의장과 조원희 대전시의회 의장도 축사를 통해 공동체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의 축전도 함께 소개되며 지역 정치권의 관심도 함께 느껴졌다.



우리 손으로 준비한 마을 축제

각 풍물단은 저마다 개성 있는 구성과 가락으로 무대를 채웠다. 노은3동 풍물단 고희숙 단장은 공연 준비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저희는 앞은반 중심에 웃다리와 영남가락도 함께 넣어 흥겨운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또, 오늘 하루를 진짜 축제처럼 즐기 위해 단원들과 함께 음식을 직접 준비해왔어요. 밖에서 사기보단 우리끼리 정성껏 만들어 나누는 게 더 의미 있잖아요.”





축제에는 아이들도 주인공이었다. 새누리유치원 김준근 교사는 이날 함께 열린 유성풍물한마음대축제와 단오제 행사가 아이들에게 특별한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아이들이 영상이나 책으로만 보던 풍물 공연을 직접 관람하고 단오 명절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전통 놀이도 하고 떡도 만들어 보고, 모두 신나게 즐기고 있어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수리취떡과 수박화채 체험 부스를 담당한 정춘정 유성문화원 회원은 아이들과 함께한 활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오늘 어린이들만 300명 이상 다녀갔어요. 아이들이 풍물 공연에 흥겨워하며 떡도 직접 찍어보고, 시원한 수박 화채도 만들어 먹으며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어른들과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하루예요.”

전통과 공동체, 그리고 계승

이번 행사는 풍물이라는 전통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었다. 유성문화원은 앞으로도 전통문화의 계승과 확산, 지역 공동체의 연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통과 공동체의 울림, 유성에 스며들다

2025 유성문화원 단오제 성황리에 개최

유성문화원 박성혜 기자



초여름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던 5월 30일, 대전 유성구 유림공원은 웃음이 넘실거리는 흥겨운 축제의 무대가 되었다. ‘2025 유성문화원 단오제’가 성황리에 열리며, 시민 300여 명이 모여 전통문화의 향기를 함께 나눴다. 단오의 세시풍속을 되살리고 공동체 정신을 재확인하는 이번 행사는 유성문화원이 주관하여 유성구 어린이집, 유치원, 각계 내빈이 참여해 도심 속 전통축제의 진수를 보여줬다.

세시풍속 단오, 오늘을 만나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 모내기가 끝나는 시기이자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 명절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마을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던 중요한 세시풍속이다. 이날 유성문화원 단오제는 그 본래의 의미를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리며, 지역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감형 문화 축제’로 꾸며졌다.

특히 행사 전반에는 유성풍물한마음축제가 함께 열리며 ‘대동(大同)’의 정신, 즉 이웃과 이웃이 마음을 모아 하나 되는 공동체의 이상이 고스란히 담겼다. 아이들과 어른, 노인과 청년이 함께 어울리며 전통문화를 나누는 장은 단오의 참된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이었다.

다채로운 체험, 오감을 자극하다

행사장에서 가장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모은 곳은 단연 체험 부스였다. 이곳은 그저 보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들어보고, 느끼고, 먹고, 뛰노는 ‘참여형 문화공간’으로 꾸며졌다.



전통놀이 체험 - 놀이로 이어지는 세대의 대화



제기차기, 투호놀이, 윷놀이, 족방울놀이 등 우리의 전통 놀이가 펼쳐진 공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어르신들은 익숙한 놀이에 손자, 손녀의 손을 잡고 직접 방법을 알려주며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교감을 이어갔다.

“투호를 처음 해봤는데 엄청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런 게 가족놀이였겠죠?”라는 한 청년의 말에서, 전통놀이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가족 간 소통의 매개체가 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창포 체험 - 물총 속에 담긴 전통의 지혜



창포는 예부터 잡귀를 쫓고 머리카락을 윤기 있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식물로, 단오마다 머리를 감거나 몸을 씻는 데 사용되곤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창포물을 활용한 창포물 대나무 물총놀이가 진행되어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다.

축제에 참여한 한 부모는 “창포라는 걸 아이가 몰랐는데, 오늘은 물총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통을 배우더라고요. 정말 좋은 방식이에요”라고 말했다.

단오 음식 - 허끝에서 피어나는 전통의 맛



무더위를 식히는 수박 화채, 쑥과 찹쌀로 만든 수리취떡은 단오의 대표적인 별미다. 이날 행사장에는 전통 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는 먹거리 부스도 마련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시원한 화채 한입에 아이들은 “맛있다!”를 외쳤고, 어르신들은 “옛날 생각난다”며 감동의 미소를 지었다.

부채 만들기 - 전통 속 나만의 창의력

공예 체험 부스에서는 ‘단오선’이라 불리는 전통 부채를 직접 꾸미는 시간이 진행됐다. 시민들은 흰 종이 부채에 자신만의 그림이나 문구를 적으며 자신만의 의미를 담았다. 어떤 이는 ‘건강’을, 어떤 이는 ‘화합’을 써넣으며 단오의 정신을 마음에 새겼다.

“이 부채를 보면 오늘의 추억이 생각날 것 같아요. 아들과 만든 첫 작품이라 더 특별해요” 한 가족 참가자의 말은 체험의 가치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통악기 체험 - 장단 속으로 뛰어든다



북, 장구, 소고, 징 등 우리 전통 악기를 직접 두드릴 수 있는 체험도 마련됐다. 행사장을 울리는 북소리와 함께



시민들의 손에는 리듬이 실렸고, 장단을 배우며 즉석 합주를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풍물’이라는 전통이 단지 공연이 아닌,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놀이 문화임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단오, 공동체 회복의 상징

행사에 참석한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단오의 의미를 오늘의 공동체 속에서 다시 발견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통문화의 계승과 지역 공동체 유대 강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조원희 대전시의회 의장도 “단오는 ‘함께 사는 대전’의 가치를 되새기게 해주는 지혜의 명절”이라며 “지역문화 보존과 전통 체험 확대를 위해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목소리로 보는 현장의 감동

박정자(65세, 유성구 장대동) 씨는 “어릴 적 단오에 창포물로 머리 감던 기억이 나서 너무 반가웠다”며 “이런 체험이



손주에게도 전통의 소중함을 알려줄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김도윤(7세) 군은 “물총 놀이가 너무 재밌었고 수박 화채가 시원해서 더 좋았다”며 해맑은 웃음을 지었다. 이처럼, 유성단오제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의미 있는 추억과 체험을 선물했다.

유성단오제,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연결고리

2025 유성단오제는 그저 과거를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 삶 속에서 전통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장이었다. 아이들은 놀이 속에서 문화를 배웠고, 어른들은 기억 속 전통을 아이들과 함께 되새겼다. 이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전통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실천적 문화운동이었다.

앞으로도 유성단오제가 매년 이어지며, 대전 시민은 물론 더 넓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대표 전통문화축제로 자리 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2025년 유성문화원 정기문화답사!

봄편

김천으로 GoGo!

유성문화원 황인몽 기자

봄은 희망이다.

봄은 청춘이다.

봄은 영광이다.

봄이 오면 벚꽃이 활짝 핀다.

사람들의 마음에도 아주 환하게

무수한 희망이 꽃처럼 피어난다.



연화지 벚꽃



2025년 4년 4일, 유성문화원 정기문화답사! 봄빛과 40명의 열성 팬들과 함께!!

봄의 새싹과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 초록빛 감성여행 김천으로 GoGo!!

출석체크를 하고 한아름 간식 선물을 받았다. 감동이다. 준비해 주신 유성문화원 선생님들의 정성에 감사함을 보낸다.

※ 9:30분

이윤미 사무국장, 손새롬이 과장, 정의진 담당자의 인사로 버스는 출발이다. 미리 김천의 볼 곳을 브리핑해 주시는 친절함도 잊지 않는다.

※ 10:50분

김천에 도착하니 벚꽃이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준다. 벚꽃으로 둘러싼 연화지! 탄성과 설렘으로 가슴은 똬다. 봄빛, 꽃빛 마음껏 만끽한다. 늘 새로운 봄이다. 연꽃은 없지만 벚꽃의 찬란한 고혹한 매력에 빠져들었다.



Happy Together 김천

※ 11:50분

연화지 썸밥에서 썸과 돼지불고기, 비빔밥으로 맛난 점심을 했다. 연화지를 담으며 다시 감탄사 연발이다. 그 후 주변 김산향교로 달려갔다. 옛 지명인 김산의 이름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산중턱 금경사에 3단으로 건립되었다. 조선 태조 1년에 지어졌고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인조 12년에(1634) 재건되었다. 1896년 유림들의 의병 창의회이기도 하다.



옥상에서 바라본 연화지



평화의 탑 앞에서 즐거운 마음 가득, 함박웃음!



집중모드로 전시관람



해설에 귀 기울이며

역사의 부침(浮沈) 속에서 천년을 이어온 사찰 직지사! 역사는 오늘도 유유히 흐른다. 미래의 영속을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또 하나의 천년을 기약하면서 봄과 함께 시처럼 흐른다. 유성문화원의 이 프로그램이 모두의 가슴에 아름다운 봄날로 기억되리라.

🌸 13:45분

🌿 사명대사공원

백두대간 황악산의 자연과 인근의 직지사 등 문화역사 자원을 연계하여 조성한 공원이다.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평화의 탑, 화합의 물레방아, 산책로 등이 있다.

🌿 김천시립박물관

사명대사공원 내에 자리하고 있다. 1전시실에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김천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다. 사람들의 생활상을 비롯하여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는 전시실이다. 제2전시실은 김천의 근현대 역사 및 문화관광자원을 전시,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김천의 문화적 뿌리를 찾고 그 시대에 일어난 주요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실이다.

🌿 직지사

서기 418년 고구려의 승려 아도가 창건한 천년고찰 직지사! 황악산에 위치하고 있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소실되었다. 17세기에 중건하여 규모가 8전 3각 12당 3장 4문에 정실만 352칸 26개의 부속 암자가 있다. 순조 때 이후 퇴락하다가 현대에 들어 규모를 다시 확장했다. 대웅전과 비로전을 중심으로 많은 전각들이 있다. 보물인 석조약사여래좌상과 석탑, 불화 등 중요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승병장 사명대사가 출가한 사찰이다.

유성문화원 현대예술단

위촉·임명장 수여식

일시 | 2025. 4. 17.(목) 18:30~
장소 | 유성문화원 다목적실(2층)
주관·주최 | 유성문화원·현대예술단



지역 예술, 유성에서 자라다... 현대예술단 위촉식 열려

유성문화원 이덕성 기자

유성문화원이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갈 든든한 동반자, 현대예술단의 출발을 알렸다. 지난 4월 17일, 유성문화원 다목적실에서는 '현대예술단 위촉·임명식'이 열렸다. 이 자리는 유성문화원이 준비한 예술단체 지원사업의 첫 공식 행사로, 단원들과의 따뜻한 첫 인사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현대예술단은 유성문화원이 새롭게 출범시키는 공식 예술단체로, 앞으로 유성 곳곳을 무대로 다양한 공연 활동을 펼치게 된다.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공연, 문화행사 협업 및 결과보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가까이 호흡하며 문화의 온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재웅 원장



김민정 지휘자



특히, 오는 12월에는 한 해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준비된 정기연주회가 예정되어 있어, 단원들의 땀과 열정이 담긴 무대를 기대해볼 만하다. 유성문화원은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자리해 따뜻한 연말을 음악으로 채워주길 바라고 있다.

이날 위촉식은 사회자의 인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인사말 순으로 차분히 이어졌다. 유성문화원 이재웅 원장은 인사말에서 “현대예술단은 지난 2017년 제1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처음 인연을 맺은 이래, 유성문화원과 긴 시간 함께 해 왔다”며 “앞으로도 단원 한 분 한 분의 재능이 지역 속에서 더 빛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현대예술단의 김민정 지휘자를 비롯해 총무와 파트장들에게는 위촉장과 임명장이 직접 전달되었으며, 총 28명의 상임 단원들에게는 사전 배포된 위촉장을 통해 함께하는 첫걸음을 기념했다. 단원들의 손에는 임명장을, 표정에는 설렘과 책임감이 묻어났다. 이어 유성문화원과 현대예술단이 함께 서명한 협약서에는 지역 문화예술을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는 따뜻한 약속이 담겼다.

김민정 지휘자는 “음악으로 하나 되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은 비록 아마추어지만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모두가 행복한 연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현대예술단은 매년 세 개 학교를 선정해 찾아가는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지관, 요양원, 양로원 등에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공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라는 다짐도 전했다.



클라리넷 조성자 단원



현대예술단 축하 연주

마지막으로 준비된 축하 연주는 짧지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활기차고 아름다운 선율 속에서 단원들은 음악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전했고, 관객들은 앵콜과 따뜻한 박수로 화답했다. 이날 위촉된 클라리넷 파트 조성자 단원은 “늦게나마 현대예술단에 가입하여 생활하기를 잘했다”고 자찬을 하며, “제 인생의 2막을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은 현대예술단에 가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에 큰 긍지를 느끼며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어요. 특히 좋은 점은, 혼자서는 잘 몰랐던 것들을 여럿이 함께하면서 더불어 사는 삶, 조화로운 삶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인생이 더 즐겁고 활력이 생겼어요. 예술단 활동을 통해 많은 즐거움을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번 위촉식은 단순한 예술단체 출범을 넘어,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키우고 예술가들이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유성문화원이 준비한 현대예술단 지원사업은 앞으로 단원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며,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 지역 예술단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12월 정기연주회는 현대예술단의 첫 번째 결실을 선보이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 유성문화원과 현대예술단은 많은 주민이 이 무대를 통해 음악의 기쁨을 나누고, 예술로 연결되는 유성의 새로운 모습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앞으로 현대예술단이 유성문화원과 함께 만들어갈 문화의 여정이, 지역 곳곳에 더 큰 감동과 활력을 전해주길 기대해 본다.

'예술 속에서 힐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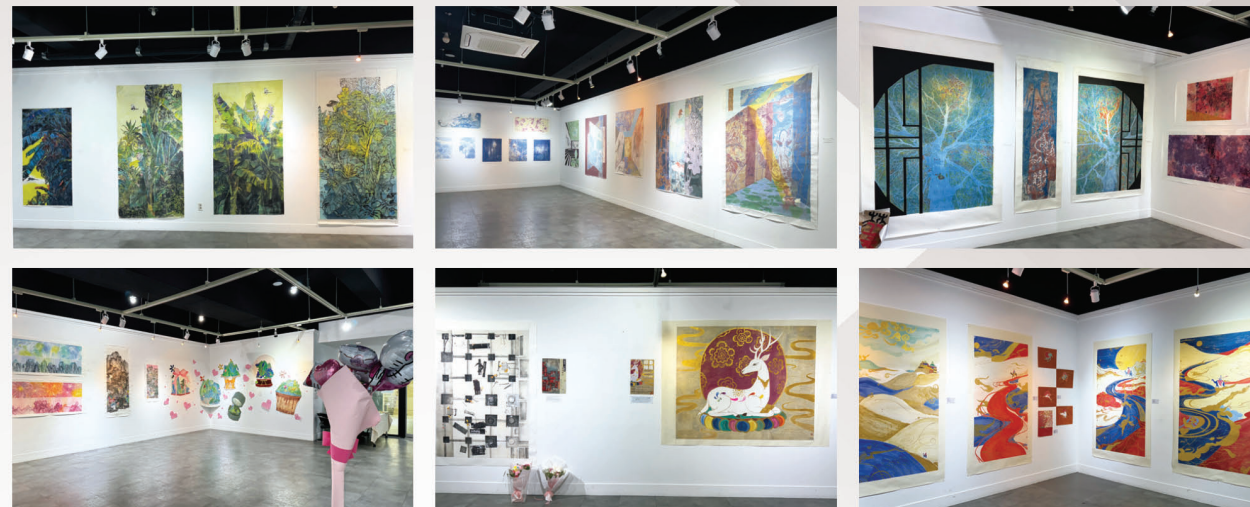
유성문화원으로 떠나는 예술 여행

유성문화원 김태균 기자

여러분 '대전 유성'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유성온천, 엑스포시민광장, 계룡산국립공원, 궁동로데오거리까지! 저마다의 답변이 다양하리라 예상한다. 사실 유성은 훨씬 더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곳이다. 유성은 다양한 예술 공간을 품고 있는 문화예술의 고장이다. 유성온천공원에서는 봄에는 '유성온천문화축제', 여름에는 '유성 재즈&맥주 페스타', 가을에는 '국화음악회&문화공연', 겨울에는 '유성 크리스마스 축제' 등 전국 최초로 테마별 사계절 축제를 개최한다.

또한 대전 유성 문화예술의 중심에는 '유성문화원'이 있다. 이에 주목할 만한 전시가 잇달아 열리고 있는 유성문화원을 찾았다. 유성문화원은 여러 공간과 전시를 두루 경험할 수 있는 대전 유성구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이곳 갤러리 유성에서는 전시회마다 다채로운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4월 7일(월)부터 10일(목)까지 <유정, 오초 석사 학위 청구展>이 열렸고, 이어 4월 14일(월)부터 17일(목)까지 <등광국, 용배 석사 학위 청구展>이 열렸다. 전시는 작가들의 신선한 시도와 예술적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관람객들이 예술 속에서 힐링을 경험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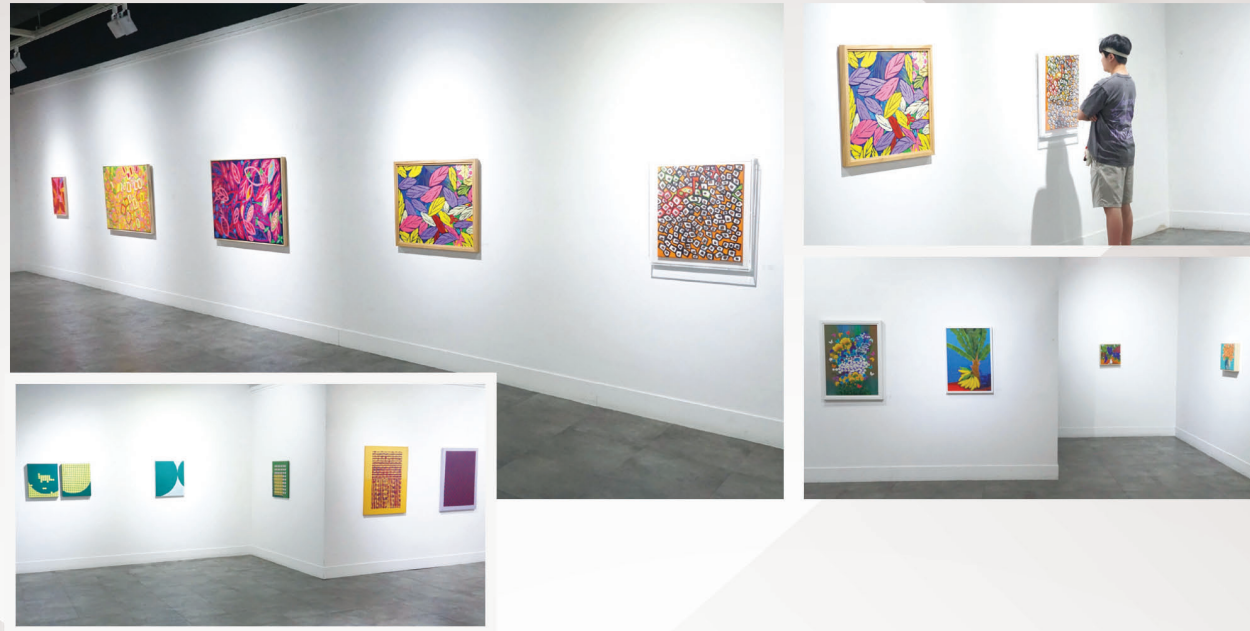
또한 지난 6월 9일(월)부터 15일(일)까지 <전통각자 맥을 잇다> 주제로 전시회가 열렸다. '각자(刻字)'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기법으로, 장인의 땀과 정성, 인고의 시간이 깃든 작품들을 소개했다.



지난 6월 16일(월)부터 6월 19일(목)까지 <다색인展>이 열렸다. 서유진, 신의경, 김희정, 안정숙 작가는 자신만의 색과 시선을 담아, 아름다운 작품을 선보였다.

작품마다 각기 다른 개성, 감성, 메시지가 조화를 이루며, 관람객의 마음에 감동과 여운을 남겼다. 무료하게 보내기 아쉬운 주말이나 쉬는 날, 예술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유성문화원에 방문해 보자. 가벼운 마음으로 들렀지만, 나을 땀 인사이트 든든히 얻고 나오는 매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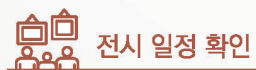




불별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올해 여름, 더운 날씨에 야외 활동이 부담스럽다면, 조용한 유성문화원 갤러리 유성에 들러보자. 나와 조용히 마주한 작품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사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며 예술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세종에서 온 이정은 씨는 “아이가 전시에 관심이 많나 남편과 함께 대전에 방문했어요. 전시 관람 후에는 엑스포시민광장 물빛광장에 들러 음악분수 공연을 감상하고, 성심담DCC점에서 빵도 사 갈 예정이에요.”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처럼 유성문화원은 갤러리 유성에서 열리는 전시회부터 매년 노래교실, 한국무용, 벨리댄스, 기초부터 시작하는 유화 등 문화학교 운영을 운영하며,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러분도 이번 여름에는 유성문화원에 들러 예술의 향연을 마음껏 누리시길 추천한다.



전시 일정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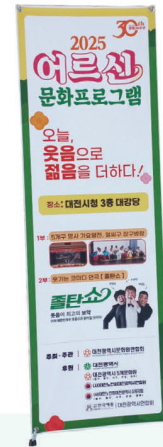
유성문화원 홈페이지 (<http://yuseong.or.kr>)



웃음으로 되찾은 청춘, 대전문화원연합회 '2025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성료

5개 문화원의 따뜻한 후원 속, 어르신 문화복지의
새로운 지평 열어

유성문화원 박성혜 기자



대전문화원연합회(회장 양동길)는 4월 10일 오후 2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2025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유성문화원을 비롯한 대전 지역 5개 문화원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며, 지역 문화복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다양한 문화 경험을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대전 지역 주요 인사들의 대거 참석과 문화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져, 어느 때보다 뜻깊은 축제의 장이 마련됐다.

♪ 어르신들의 축제, 지역 사회의 따뜻한 관심 속에 빛난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희 대전시의회 의장, 대전 5개 구청장, 노인회장, 문화원장 등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 문화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

특히 이장우 시장은 “어르신들이 문화를 통해 젊음을 되찾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대전시는 앞으로도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으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 문화로 소통하고, 노래로 하나 된 시간

‘오늘, 웃음으로 젊음을 더하다!’를 주제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다채롭게 진행됐다.

1부에서는 ‘5개구 명사 가요열전’과 문화원 특별공연이 펼쳐졌다. 대전 5개 구의 노인회 지회장과 문화원장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익숙한 가요를 열창하며 관객들과 소통했다.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박수를 치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무대와 객석이 하나 되는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특히 대덕문화원의 ‘열씨구 장구병창팀’이 선보인 전통 장구공연은 어르신들에게 익숙하고 신명 나는 장단으로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 공연은 행사에 흥겨움을 더하며, 어르신들의 어깨를 절로 들썩이게 만들었다.

♪ 코미디 연극 ‘졸탄쇼’, 웃음으로 마음을 열다.

이어진 2부는 관객참여형 코미디 공연 ‘졸탄쇼’가 무대를 장식했다. 졸탄쇼는 배우와 관객이 함께 무대를 만들어가는 형식으로, 자연스러운 웃음과 따뜻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어르신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배우들과 함께 연기를 펼치는 순간마다 객석에서는 웃음과 환호가 터져 나왔다. 재치 넘치는 대사와 기발한 설정은 관객들의 몰입을 이끌어냈고, 젊은 세대와 어르신 세대가 함께 웃는 장면은 프로그램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했다.

공연을 마친 후에는 “몇 년 만에 이렇게 웃어본다”는 소감이 이어졌으며, 졸탄쇼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을 선물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기억되었다.

♪ 어르신 문화복지의 새로운 미래를 열다

양동길 대전문화원연합회장은 “이번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심신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전문화원연합회는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어르신 대상 문화예술 교육, 전통문화 체험, 지역 축제 연계 프로그램 등 보다 폭넓은 문화복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문화적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의 문화적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

‘2025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웃음과 감동, 그리고 세대 간 따뜻한 소통이 어우러진 뜻깊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대전문화원연합회와 지역 문화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문화의 꽃을 피우는 길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팝꽃과 어우러진 은빛 스타의 흥 잔치 열려

팝페라 앙상블 동아리가 대상
주변엔 다양한 부스 운영

유성문화원 신순남 기자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둘 모여들더니
어느 밤 폭풍우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위섬과 흰 파도라네

주변의 형형색색 봄꽃과 이팝꽃에 어울려 유성온천 족욕
체험장에 퍼졌다.

바위섬을 작사, 작곡한 배창희 씨는 ‘바위섬’은 5.18 당시
고립된 광주를 의미했으나 멜로디와 가사가 서정적이고
인기가 높아 당국에서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데모 현장에서
많이 불려 금지곡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이제는 갈매기도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이 노래는 유성문화원 유성이합창단이 3번째 순서로
발표한 곡으로 이 사실을 알고, 이슬비를 맞으며 들으니
먼저 간 친구가 생각나며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10일 오후 2시, 유성 두드림공연장 주무대에서는 ‘은빛
스타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유성구가 주최·주관한 「2025
유성 실버 페스티벌」이 열렸다.

정용래 유성구청장, 김동수 유성구의회 의장, 신기영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장 등 내빈과 심사위원 소개 후
정용래 구청장의 인사가 진행됐다.



개회식



정용래 유성구청장



김동수 유성구의회 의장



유성이합창단



팝페라 앙상블 동아리



에그리나 색소폰 앙상블



마당극



손 인형극



대상 '팝페라 앙상블 동아리'



최우수상 '춤 연 무용단'



우수상 '에그리나 색소폰 앙상블'

정용래 구청장은 “이슬비가 내리는 데 준비하느라 수고했다”며 “젊은이들을 위한 축제는 많은 데 어르신들을 위한 축제가 없어 아쉬워하다 어르신 축제를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해지려면 노는 곳이 많아야 한다”며 “유성구 의회와 힘을 합해 열심히 어르신들이 놀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예선을 통과한 대전 지역 거주 60세 이상 시니어 동아리(5인 이상 20인 이하) 11개 팀이 노래, 댄스, 풍물, 사물, 무용 등 다양한 부분에서 경연을 벌였다.

경연이 끝나고 심사 결과를 모으는 동안 마당극이 펼쳐져 웃고 즐기는 시간이 되었다.

심사 결과 「푸니쿨리, 푸니쿨라」를 합창한 유성구 남부 노인복지관 팝페라 앙상블 동아리가 대상, 춤 연 무용단이 최우수상, 유성구 에그리나 색소폰 앙상블이 우수상을 받았고 나머지 8개 팀은 장려상이 돌아갔다.

주변에는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와 유성구노인복지관 등이 꾸민 복지정보존, 유성시니어클럽의 할매 빈대떡과 유성지역자활센터의 좋은 떡볶이와 호두과자 등 구수한 먹거리존, 유성문화원 유성이알림단과 함께하는 인형극, 유성이전통단과 함께하는 전통놀이 체험을 통해 세대 공감 문화체험존, #고마운 마음 #같이해孝와 노인 학대 신고 1577-1389 등 어르신돌봄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성치매안심센터의 다 함께 치매 예방! 더 좋은 은빛 노후! 등 건강체험존 등 38개 부스가 운영됐다.

김이 피어나던 거리, 온천이 흐르던 시간

대전근현대사전시관의 특별전 ‘유성온천 전성시대’

유성문화원 조윤서 기자

한때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던 유성 거리에 지금은 자동차 소음만이 울려 퍼진다. 대전 유성구는 오랜 세월 ‘온천의 도시’로 기억됐지만 그 과거는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대전근현대사전시관은 잊혀가던 유성온천의 전성기를 조명한 특별전 ‘유성온천 전성시대’를 선보이고 있다. 이 전시는 단순한 과거 회고가 아닌 지역 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한 시도로 주목받았다.

대전근현대사전시관은 대전시립박물관의 분관으로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 본관 1층에 자리해 있다. 이곳은 약 100년에 걸친 대전의 역사와 근현대의 변화 등을 다양한 전시를 통해 소개해 왔다. 그중 이번 역사특별전 ‘유성온천 전성시대’는 191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유성온천이 관광지이자 신혼 여행지로 각광받던 시기를 집중 조명한다. 유성호텔은 지난해 3월 아쉽게 폐업했으나, 이번 전시는 과거 유성온천이 지녔던 상징성과 시대적 풍경을 생생하게 복원했다.

전시는 제1, 2관 전시실로 나뉘어 상설 운영 중이다. 각종 신문 기사, 광고, 엽서 등을 통해 유성온천의 전성기를 시각화했으며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요소들을 더해 전시의 몰입도를 높였다.

기획전시실 1에서는 유성온천에 대한 역사적 문헌과 옛 목욕탕 공간이 재현돼 있다. 전시실 한쪽에는 “목욕합니다”라는 문구 아래 목욕의자, 세신대, 대야 등 당시의 목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물건들이 비치돼 있어 관람객들이 기념사진을 찍으며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대전근현대사전시관
360°VR 전시 관람 QR코드



유성온천 목욕탕





유성호텔 313호

또한 유성온천의 기원과 성장 과정도 살펴볼 수 있다. 유성온천은 삼국시대~통일신라 시기에 발견됐다는 전설에서 비롯됐다.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조선시대 태조(재위 1392~98)는 새 왕도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계룡산에 들러 이곳에서 목욕했으며, 제3대 태종(재위 1402~18) 역시 자주 온천을 찾았다고 한다. 조선 초기의 실록과 여러 문헌에도 유성온천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가장 오래된 공식 기록은 고려시대 역사서 「고려사」(1451년)의 56권 '지리지'에 등장하는 "유성현은 온천이 있다"는 구절이다.

이후 1914년~1917년에 일본식 근대 온천 시설이 세워졌으며 1925년 봉명관을 개관했다. 봉명관은 1945년 육군에 인수되었다가 1966년에 유성관광호텔 자리에 신축 이전됐고 1977년 법인 전환을 통해 '유성관광호텔'로 자리 잡았다.

기획전시실 2에서는 유성호텔의 VIP객실인 313호, 일명 '대통령방'을 복원한 공간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역대 대통령과 사회 저명인사들이 머물렀던 이 객실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만큼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엔틱한 고급 가구들로 채워진 복원 공간은 당시 유성호텔의 격조 높은 분위기를 생생히 보여준다.

유성온천은 일반 시민은 물론, 왕과 대통령까지 방문할 정도로 명성이 높았던 대전의 대표 자원이다. 유성온천은 국내 온천 지구 가운데 부존량과 사용량 측면에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유성의 온천수는 50~400m로 구성된 화강암 단층 파쇄대에서 생성된 물로, 지하 200m 이하에서 분출되는 27~56°C 의 고온열천이다. 온천수 산성도(pH)는 7.5~8.5의 약알칼리성이며 라듐이 풍부한 방사능 단순천이다. 특히 실리카 성분 함량이 40mg/L 이상으로 '실리카 온천'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이러한 성분은 피부 자극이 적고 각종 피부 질환 및 신경계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근현대사전시관의 이번 전시가 특별한 이유는 단지 옛 유성온천의 추억을 되살리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자원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유성온천은 ▲치유 ▲여행 ▲지역경제 ▲공동체 등의 키워드를 품고 있으며 대전 시민의 삶과 연결된 상징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전시를 통해 단순히 옛 기억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유성온천을 기억하는 방식을 새롭게 전환한 것에 의미가 있다. 관람객은 전시를 통해 옛사람들이 온천수로 피로를 푸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으며 그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그 시절의 활기와 정서까지 마주할 수 있다.

사라져 가는 골목, 무너진 목욕탕, 그리고 잊힌 이야기들을 다시 꺼내 시민들과 나누는 일. 이번 전시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도시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2025 진잠향교 석전대제 봉행

유성문화원 이덕성 기자



2025년 3월 9일(일) 진잠향교에서 옛 성현들에게 석전대제를 봉행하였습니다.

진잠향교 석전대제(釋奠大祭)는 공자와 유교 성현들을 기리는 전통 제례로, 매년 봄과 가을 음력 2월과 8월의 첫 정일(丁日)에 거행됩니다. 이 행사는 대성전에서 공자와 5성과 송조6현, 동국18현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제를 올리는 의식입니다.

석전대제는 유교 문화의 중요한 행사로, 공자의 학덕과 가르침을 기리는 자리이며, 유림들이 모여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제례를 진행합니다. 또한, 식망분향(朔望焚香)이라는 의식도 함께 진행되는데, 이는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공자의 신위 앞에서 분향하는 행사입니다.

진잠향교는 1405년(태종 5년)에 창건되어 대전 지역에서 유학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으며, 대성전과 명륜당, 동서양재 등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잠향교 권선웅 전교는 진잠향교 석전대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진잠향교 석전대제는 유교 전통을 계승하는 중요한 제례로, 공자와 유교 성현들에게 예를 표하는 행사입니다. 이 제사는 음력 2월과 8월의 첫 정일(丁日)에 거행되며, 엄격한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석전대제의 절차

- ① 제수 준비 - 공자와 성현들에게 바칠 제물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 ② 초헌례(初獻禮) - 제사를 주관하는 초헌관이 첫 번째 술잔을 올리며 예를 표합니다.
- ③ 아헌례(亞獻禮) - 두 번째 헌관이 술을 올리고 공경을 표합니다.
- ④ 종헌례(終獻禮) - 세 번째 헌관이 마지막으로 술을 올립니다.
- ⑤ 악무(樂舞) - 공자의 가르침과 성현들의 업적을 기리는 전통 음악과 춤이 진행됩니다.
- ⑥ 철변두(徹邊豆) - 제물이 철수되고 제례가 마무리됩니다.

김연실 대전시 문화관광 해설사는 향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진잠향교의 역사와 구조

진잠향교는 1405년(태종 5년)에 창건되어 대전 지역에서 유학 교육과 유교 문화를 전파하는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향교는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등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성전에는 공자를 비롯한 중국과 한국의 성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향교 입구에는 홍살문과 하마비(下馬碑)가 설치되어 있어, 조선 시대 당시 이곳의 위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마비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곳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려야 한다는 뜻을 가진 석비로, 임금조차도 이곳에서는 예를 지켜야 했습니다.

유교 문화의 계승

진잠향교에서는 춘추향사(春秋享祀)를 비롯한 다양한 유교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석전대제는 단순한 제례가 아니라 유교 정신과 전통을 후대에 계승하는 중요한 행사로, 지역 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향교는 학생들이 성리학을 공부하고 성현들에게 재향을 지내는 일을 했습니다. 향교에 학생들이 들어오면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대고 학생들의 부담이 없었어요. 그리고 군역도 면제가 됐었습니다. 조선 시대에 과거 제도가 폐지되면서 향교의 역할 중에서 교육의 역할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해방을 맞이하면서 교육의 기능이 다시 점진적으로 부활이 되게 됐죠. 그래서 향교에서는 충효교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문 교육, 인성교육, 충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전 공부하고 서예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코를 꺾다』

대전 유성
송대수 작가와의
만남

유성문화원 황인몽 기자

“아! 그래, 이런 단어를 만들어 글을 쓴다면
함축된 의미를 쉽게 이해되게 쓸 수 있겠다.”



한 사물을 빛에 따라 다르게 표현한 모네의 그림처럼, 내면의 깊은 의식을 그림으로 그려낸 고흐처럼, 삶의 순간을 한자 한자 꿰어 쓴 책 『글코를 꺾다』를 출간했다. 대전 유성의 송대수 작가이다. 일흔에 출간해서 우리에게 더욱 희망을 주는 듯하다. 송작가와 이야기 숲을 거닐어 본다.

송대수 작가는

아직 작가라 불릴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겸손히 말한다. 작가라고 하면 저술한 책이 많고 대중에게 알려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단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제 책을 읽어주고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생겨 당당하게 ‘제가 그 책의 작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송작가는 대전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대학원을 서울에서 다녔고 이공계를 전공했다. 이곳 유성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 충남대학교가 공학부 건물을 신축하여 옮겼을 때 처음으로 유성캠퍼스에서 강의를 들은 학생이다. 그 후 서울로 가서 직장 생활과 사업을 하였다. 그러다 사업이 여의치 않아 그것을 접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꾸리며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고 있다.

책이 나오기까지

나이 육십 중반에 들어설 무렵, 서울의 한 문예지에 기고한 글로 수필 부문에 당선 등단하게 되었다. 2016년 등단 후 2022년 4월에 7년 간의 유럽 여행 이야기를 담은 책 『바람이 부는 그곳에』를 출간한 적이 있다.

그 후 1년 간 열심히 글을 썼고, 문예지에 실었던 글과 이미 써 놓았던 글을 책으로 엮을 정도의 분량이 되었다. 그렇게 오늘의 책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번 책은 글쓰기에 좌절했던 많은 시간을 지나 힘든 상태를 극복하고 다시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낸 책이다. 글 쓰는 일이 쉽지 않다는걸 실감했던 기간을 지나온 셈이다. 지금도 여전히 글 쓰는 것이 어렵다. 그런 심정 이 책의 이런저런 글 속에 녹아 있다.



송대수 작가

현재는 유성문화원 안에 자리 잡은 <온천마을 작은도서관>에서 봉사 활동을 한다. 서가에 꽂힌 수많은 문학책을 한 권씩 꺼내 보았다. 훌륭한 책을 접하면서 책을 내고 싶은 자극을 은연중에 받았다. 도서관이라는 곳이 정서 함양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책이 우리에게 주는 동경과 자극으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가르쳐 주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책은 나의 스승이다’ 라고 생각한다.

글의 착상은 주로 새벽에

주로 고요한 새벽에 글을 쓴다. 잡념이 없고 맑은 정신일 때 아이디어나 생각이 불쑥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 아이디어에 나의 경험이 더해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짜여지면 글을 쓸 수 있다.

이번에 발간된 수필집에서는 글 쓰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적어보았다. 처음에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다. 일기를 쓰면서도 누가 볼까 봐 마음을 감추는 것처럼 나를 드러낼 수가 없었다. 부끄럽기도 했다. 그러다 조금씩 마음이 열리며 감추고 싶었던 것조차 어떤 것은 적나라하게 어떤 것은 살짝 우회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드러내니 오히려 그런 나의 나약함이나 어리석음을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 스스로 자유로워지고 힐링되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뭉클뭉클 뭉친 것이 밖으로 튀어나왔다. 제 머리를 때리는 것이었다.



‘아! 그래, 이런 단어를 만들어 글을 쓴다면 함축된 의미를 쉽게 이해되게 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떠오르고, 사전에 없는 단어도 만들게 되었다. 바로 ‘글코’라는 단어이다. 사전에 없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 모두 어느 정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글코를 꺾다’가 내 수필집의 제목이 되었다.

향후 하고 싶은 일

수필은 짧은 글이지만 매주 한 편씩 나올 정도로 쓰지 못한다. 힘들긴 해도 다음 책을 내고 싶다.

얼마 전 앞으로 나올 책 제목을 미리 ‘사계(四季)’라고 정해봤다. 비발디의 사계가 있다.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것인데 우리 생활이 사계절에 따라 얼마나 다른지, 어떤 일은 우리가 계절에 비유하거나, 계절에 핑계 대고, 실지로 계절이 바뀌면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도 많다. 같은 듯 다른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벌어진다. 그런 주제로 글을 써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또 다른 희망이 있다면, 마음속에 늘 가진 생각인데 단편 소설을 쓰고 싶다. 이청준 작가의 단편 소설을 읽으며 많이 감동했다. ‘그의 창작 세계가 참으로 풍부하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이청준 소설가는 특히 인간 내면의 심리, 진실과 허구의 경계, 말과 침묵의 의미, 역사와 개인의 관계 등을 깊이 있게 탐구한 작가이다. 그의 글은 단순한 서사 이상으로



온천마을 작은도서관 봉사자들과

철학적이고 사유적인 깊이를 가진다, 한국 현대사의 아픔과 개인의 내면적 갈등을 정교하게 형상화 했다. 대표작 <죽제>에서는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말과 침묵이 충돌하며 진실이 드러나는 이야기이다. 사회 현실을 들춰냈다 고나 할까? 영화 <서편제>의 원작인 <남도사람> 역시 말과 소리(판소리)가가지는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 그 책을 읽을 때 그토록 심한 흡인력을 가진 소설을 보지 못했다. 그의 작품이 존경받는 이유는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깊이 있는 시선 덕분이다.

📖 후학에게 전하고 싶은 말

인생 2막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문단에 등단한 지도 얼마 안 되었다. 게다가 남들은 오랜 작가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저보다 훨씬 많은 글을 쓰고 책을 내며 문단 활동도 열심히 한다. 단지 나이가 들어가는 요즘, 젊은이들이 무엇을 배운다고 할 때에는 뭘 해도 십 년은 해야 한다고. 그래야 그 분야를 좀 알까 말까 하는 정도가 된다. 그런 후에야 자신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는지 감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인생 2막에도 새로운 삶이 있다. 지금 같은 100세 시대에는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할 것이다. 살아온 시간만큼 또 다른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은 축복이다. 그런 축복을 허투루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인생 2막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즐거운 일인 만큼 즐거

움을 남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인도 즐겁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 가능하다면 조금은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 좋아하는 책

이청준의 단편 소설 「서편제」와 가즈오 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나날』이다. 『남아있는 나날』은 인생의 황혼기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인물들의 인생 황혼기에 대한 아쉬움, 행복함,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책이다.

📖 권하고 싶은 책

오르한 파묵의 『하얀 성』은 이탈리아의 지식인이 오스만 튀르크 남자의 노예가 되어 생활하면서 그들의 처지가 서로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을 각자 하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왜 나는 나 일까?’라는 명제로 다툼과 토론을 반복하며 서로 다툰다. 실제로 서로가 바뀐 채로 살기도 한다. 그러나 동일체가 아닌 이상 내가 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아련한 추억마저 앗아가 버린 튀르크의 남자가 과연 나일까? 나의 실존은 무엇인가? 고민하는 이탈리아 지식인의 모습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 같아 보인다.

많은 독서에서 빚어 낸 책 『글코를 꿰다』이다. 남은 시간들 더욱 빛나는 나날이 송작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헬리콥터 책방

따뜻한 그림책으로 위로 한 스푼

유성문화원 이수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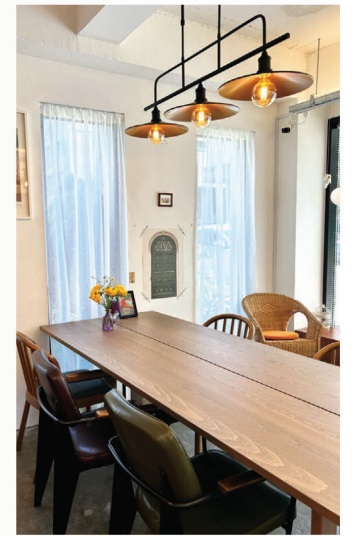
‘그림책’을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읽던 동화책 말고, 남녀노소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그림책’이요. 그림책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대전에 있는 독립 서점, 꿈을 나르는 ‘헬리콥터 책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헬리콥터 책방은 그림책 위주로 구성된 북카페 공간으로,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동네 독립 서점입니다. 어린이용 그림책뿐만 아니라, 어른을 위한 그림책도 많아서 더욱더 매력적입니다. 위로와 힐링이 필요한 순간, 다정하고 쉬운 그림책으로 곁을 내어주는 이곳, 헬리콥터 책방. 그런 책방을 운영하는 책방지기 박미현 대표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꿈을 나르는) 헬리콥터 책방 책방지기 박미현 대표는 초등학교 아이를 둔 엄마이자, 작가입니다. 저서로는 <더 나은 내가 되기로 한순간>, <답체인지2022>, <가족해방일지>, <왕초보가 4달만에 종이책 완성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책방을 운영하시며 작가로도 활동하고 계신 대표님의 책에 대한 열정이 돋보였습니다. 더불어, ‘감정 그림책’이라는 테마로 아이들과 감정부 클립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본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꿈을 나르는) 헬리콥터 책방은 박미현 대표님의 또 다른 꿈이자 성장 공간입니다. 사회에 첫발 내딛고 직장인으로서 숨 가쁘게 달리던 일상에서 책은 숨구멍이었다고 합니다. 고민이 많을 때 책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제는 그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정함을 건네고 싶다는 마음으로 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방지기 마음과 취향이 잘 담겨서 그런지, 책방 공간은 참 따뜻하고 아늑합니다. 차 한잔 마시면서 마음을 쉬어 갈 수 있고, 쉽게 읽히는 그림책을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림책 테라피, 독서 모임, 감정부클립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책방 내부

그림책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이번에 헬리콥터 책방을 다녀오고 나서 성인을 위한 그림책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수많은 글자로 써 내려간 책이 아닌, 몇 마디 짧은 문장과 따뜻한 그림은 일상 속 지친 우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주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인을 위한 그림책: <100 인생 그림책, 하이게 팔러>, <삶의 모든 색, 리사 아이사토>, <선, 이수지>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필요한 어른이들, 마음을 돌보고 지키고 싶은 어린이들, 그리고 그림책으로 성장과 치유를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헬리콥터 책방을 추천합니다.

🎧 책방지기 박미현 대표님과 인터뷰

Q 헬리콥터 책방을 시민들에게 소개해주세요!

헬리콥터 책방은 책이 여러분의 꿈을 나르는 헬리콥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사실, '헬리콥터 책방' 이름은 저희 아이가 지어주었습니다. '헬리콥터'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아이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죠. 책방은 엄마인 저의 로망입니다. 모두의 로망을 담아 책이 꿈을 나르길 바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헬리콥터 책방에는 그림책이 많습니다. 아이 덕분에 그림책의 진정한 매력에 빠진 엄마가 추천하는 그림책으로 위로가 힐링이 필요한 분들에게 다정함을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책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기에 책방에 편안히 둘러 머물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그림책 위주이지만, 에세이, 소설, 시집도 함께 구비해두었습니다.)

Q 대표님께 독립 서점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어릴 때부터 책방은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눌 때 더 빛나는 공간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도 성장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엄마들을 위해 시작한 공간이에요. 이제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Q 헬리콥터 책방을 어떤 서점으로 운영하고 싶나요?

지금은 감정 그림책이라는 테마로 아이들과 감정북클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확대하여 성인 대상으로 운영하고 싶기도 합니다. 요즘 마음이 힘든 어른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음과 성장을 돌봐주는 책방이 되고 싶어요.

Q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작은 동네 책방은 책방지기의 로망을 담아 시작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이뤄지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보석같이 숨어있는 동네 책방에서 보물 같은 그림책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동네 책방들이 지역사회와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316번길 45-14, 1층
- 🕒 운영시간 : 10:30 ~ 16:00 (유동적이므로, 방문 전 연락 권장) ※ 일요일 정기휴무
- 💰 공간대관 : 2시간 대관 5,000원/1인 (커피포함)
- ☎ 문의처 : 네이버 톡톡, 유선 연락 (010.6836.2416)
- 📖 프로그램 일정 : (블로그) <https://blog.naver.com/firstyourstep>
(인스타) https://www.instagram.com/book_ditda



마음독립서점

책을 통해 위로받고 독립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줄 공간 마음독립서점을
살펴보다

유성문화원 조수진 기자



마음독립서점 내부

상호에서부터 궁금증을 자아내는 마음독립서점은 유성구 노은동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지하에 서점이 있어 지나다니는 길에서는 간판만 보일뿐 내부공간이 보이지 않는다. 주저하지 말고 계단을 내려가 서점에 들어서보면 여기가 지하인지 까먹을 정도로 포근하고 환한 아기자기한 서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마음독립서점은 '마음 관련된' 책으로 사람들과 책을 만나게 해주는 공간이다. 처음 시작은 5년 전 '마르타의 서재'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 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상호를 변경하였다. 그러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생겼다. 그때는 그냥 좀 편안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두루뭉술한 메시지였다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자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을 좀 독립하고 내가 좀 바로 서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3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다.

운영자이자 그림책 테라피스트인 김태임님과 서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 보았다.

책방지기 김태임 대표님과 인터뷰

Q 다른 서점들과의 차이점이나 이곳만의 특화된 점은 무엇인가요?

독립서점은 책방지기들이 추구하는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공간을 열게 된 건 제가 굉장히 힘들

었던 때예요. 육아를 시작하면서 대전에 오게 됐는데 타지생활에 육아에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책방을 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과 독서모임에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고 힘을 얻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른 분들한테도 나누고 싶고 저도 계속해서 그런 모임과 사람과 책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열게 된 거라 마음건강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엔 건강관련, 마음관련, 정신, 영적 성장 관련된 책을 소개하고 있고 모임도 그런 쪽이에요. 깨달음을 얻어서 마음이 편해지고 싶은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저희가 다른 책방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이런 프로그램도 하네 하고 특이한 거는 '맨발걷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것과 책을 연결해서 '영적 독서모임'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다가 제가 위로 받고 치유 받는 경험을 하면서 그림책에 관심이 생겨 '그림책 테라피스트' 공부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테라피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서 더 다양한 분들과 만남이 많아지게 된 거 같아요.

Q 말씀을 듣다보니 '영적'이라고 하면 종교를 떠올리게 되는데 종교와 관련이 있나요?

처음에 시작한 '마르타의 서재'에서 마르타는 제 세례명이에요. 저는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꼭 신앙을 전달해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신앙이라는 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거라 그걸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상호를 변경하고 나니까 조금 더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영적독서모임도 종교 책을 빼고 그냥 나의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모임을 열었는데 신앙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도 했지만 저는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Q 마음관련서적 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깨달음 관련된 책으로는 류시화 작가님책, 또는 심리학책, 인문학책, 정여울 작가님책 등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신 분들 책들이 많고요. 마음을 들여다 보게끔 하는 책으로는 글쓰기 관련된 책 '아티스트웨이'라던가, 은유 작가님 책 등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림책 공부하면서는 그림책이 좋은 이유는 아주 큰 메시지를 짧은 시간에 완독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하는 책은 어린이그림책이 아니고 어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림책이에요.

Q 주로 찾아오는 고객층이나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가끔 데이트 나온 20대 커플도 오긴 하지만 주로 4~50대 여성분들이 많으시고요, 교사 분들이 많이 오세요.

Q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책이나 추천하시는 책이 있나요?

예전에는 제가 글쓰기 할 때 너무 좋아서 '아침글쓰기'를 꼭 추천 드렸었어요. 그리고 '아티스트웨이' 책도 글쓰기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책을 권하기 보다는 글을 꼭 써보셨으면 합니다. 남들 보기에 좋은 글을 쓴다기보다는 내 마음에 치유를 위해서 나만의 대나무 숲 같이 쓰는 것을 꼭 좀 해보셨으면 하고요. 최근에 읽은 책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 자서전이 저한테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적 독서모임을 하는 날인데 이번에 읽은 책이 청소년 소설 '유언'이라는 소설이에요. 저희가 영적독서로 하다 보니 소설을 읽고 그 스토리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내 삶의 성장과 연결을 해서 읽게 되는데 저는 모임을 주도하는 입장이라 책을 두 번에서 세 번 재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제 삶에서 연결되는 부분을 찾으려고 하다보니까 책이 더 좋고 깊게 느껴져요. 이 책이 청소년 소설이라 짧게 빠르게 읽을 수 있거든요. 재미있게 보자면 '어 그래 좋았다' 하고 끝날

수 있는데 모임을 준비하려고 열심히 읽다보니 어른들이 읽기에도 너무 깊고 성찰할 것들이 많아서 '유언'도 추천 드립니다.

Q 서점 내 모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설모임, 와인 북클럽, 영적독서모임, 그림책모임이 있습니다.

Q 아로마 병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아로마테라피인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하게 됐어요. 책은 읽으려면 굉장히 능동적인 어떤 것을 가지지 않으면 힘든데 향은 생각을 별로 안하고 싶은 분들이 쉽게 호불호가 정해지니까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치유 효과가 있어요. 이걸 독서모임이나 프로그램 할 때 같이 접목을 했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림책 테라피 할 때도 아로마를 이용한 활동으로 '나만의 향수 만들기'를 하면서 그 향이 끌리는 이유에 대해 얘기 해드리면 재밌어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향을 말으면서 기분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아로마테라피 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요.

Q 앞으로 바람이나 목표가 있다면요?

얼마 전 책방지기를 대전 네트워크 모임을 했어요. 1인 책방이라 다들 자리를 비우기가 쉽지 않아서 모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오랜만에 만났어도 너무 다 힘든걸 아는거예요. 이걸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힘든 중에도 자기가 가진 신념 때문에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서로 너무 잘 알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책방을 유지하기 위해 책 판매만으로는 수입이 되지 않아 다른데 출장을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책방 운영시간이 짧아지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책방지기면 서점에 있어야지 하며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는데 제가 왜 서점을 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하니까 운영시간이 중요한 것도 물론 있지만 이 공간이 유지가 돼야 그걸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걸 알리고 제가 외부로 출장 가서도 저는 마음독립서점을 이야기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알려지고 하다보면 방문하시는 분들도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보고 조금 더 문턱이 낮아지지 않을까 잘 운영해서 1층으로 올라가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다는 게 저의 바람이자 목표입니다.

책을 통해 어려웠던 시간을 극복해낸 자신의 경험을 자산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힘을 키워주고자 5년째 건재하고 있는 마음독립서점.

내 마음이 조금 약해졌다고 느낄 때 움츠러들지 말고 이 공간을 한번 방문해 보면 어떨까? 내게 위로가 되어줄 책 뿐만 아니라 작은 소모임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반복되는 일상에 작은 환기가 되어 줄지도 모른다.

📍 위치 : 대전 유성구 은구비서로24번길 6 지하 1층

🕒 운영시간 : 10:00 ~ 16:00 ※ 일요일 정기휴무

☎ 문의처 : 네이버 톡톡, 유선 연락 (0507-1493-9978)

📖 관련사이트 : (블로그) <https://blog.naver.com/marthabooks>
(인스타) <https://www.instagram.com/mindfreebooks>



요일	프로그램명	강사	강의시간	수강료(3개월)	강의실(층)
월	김정선의 노래교실	김정선	10:00~12:00	60,000원	다목적실(2)
	한국무용(월요)	이현숙	10:00~12:00	60,000원	예체능실(4)
	가락장구장단	이춘옥	10:00~12:00	57,000원	전통문화실(4)
	한문서예(월요)	구경희	10:00~12:00	75,000원	취미교실(3)
	여섯줄 클래식 기타교실	홍소림	10:00~12:00	90,000원	라온마실(3)
	경기민요	이순임	13:00~15:00	60,000원	전통문화실(4)
	어반스케치	신지혜	13:00~15:00	75,000원	취미교실(3)
화	다이어트밸리댄스	홍지성	15:30~17:30	129,000원	예체능실(4)
	청풍명월	윤민숙	10:00~12:00	69,000원	예체능실(4)
	한글서예	윤병건	10:00~12:00	75,000원	취미교실(3)
	포크통기타 초급	이석진	09:30~11:00	90,000원	세미나실(3)
	포크통기타 고급(핑거스타일)		11:00~13:00	90,000원	세미나실(3)
	포크통기타 중급	박경학	14:00~16:00	90,000원	세미나실(3)
	문인화		13:00~15:00	57,000원	취미교실(3)
수	진도북춤	김원경	13:00~15:00	69,000원	예체능실(4)
	시조창	박학미	15:30~17:30	60,000원	취미교실(3)
	김숙자류입춤	김연익	10:00~12:00	90,000원	예체능실(4)
	뎃생&수채화	김해숙	10:00~12:00	90,000원	취미교실(3)
	경서도 민요와 장구	오현숙	10:00~12:00	69,000원	전통문화실(4)
	오카리나	한연호	13:00~15:00	90,000원	라온마실(3)
	판소리	지유진	13:00~15:00	69,000원	전통문화실(4)
목	김소원 퓨전장구	김소원	10:00~12:00	90,000원	전통문화실(4)
	기초부터 시작하는 유화	최윤정	10:00~12:00	120,000원	취미교실(3)
	우쿨렐레	백선경	10:00~12:00	90,000원	라온마실(3)
	우리춤체조	최민희	10:00~12:00	90,000원	예체능실(4)
	유화	송채례	13:00~15:00	120,000원	취미교실(3)
	댄스포츠(왈츠)	박경민	13:00~15:00	105,000원	예체능실(4)
	댄스포츠 라틴(초/중급)	이영린	18:30~20:30	90,000원	예체능실(4)
	가야금	권정옥	18:30~20:30	90,000원	전통문화실(4)
	대금과 단소	이재천	18:30~20:30	69,000원	라온마실(3)
	해금(목요)	정다솔	18:30~20:30	90,000원	세미나실(3)
금	태평무(오전)	강소정	10:00~12:00	69,000원	예체능실(4)
	한국화	김진순	10:00~12:00	57,000원	취미교실(3)
	태평무(오후)	강소정	13:00~15:00	90,000원	예체능실(4)
	토탈 캘리그래피	양 영	15:30~17:30	90,000원	취미교실(3)
	가야금병창	복선영	15:30~17:30	75,000원	전통문화실(4)
토	토요해금	정유라	10:00~12:00	69,000원	라온마실(3)
	한문서예(토요)	구경희	10:00~12:00	57,000원	취미교실(3)
	댄스포츠 라틴댄스(고급)	이영린	10:00~12:00	90,000원	예체능실(4)
	팬플루트(오전)	박상봉	10:00~12:00	90,000원	세미나실(3)
	팬플루트(오후)		12:40~14:40	90,000원	세미나실(3)
	유성농요	김숙희	12:40~14:40	60,000원	전통문화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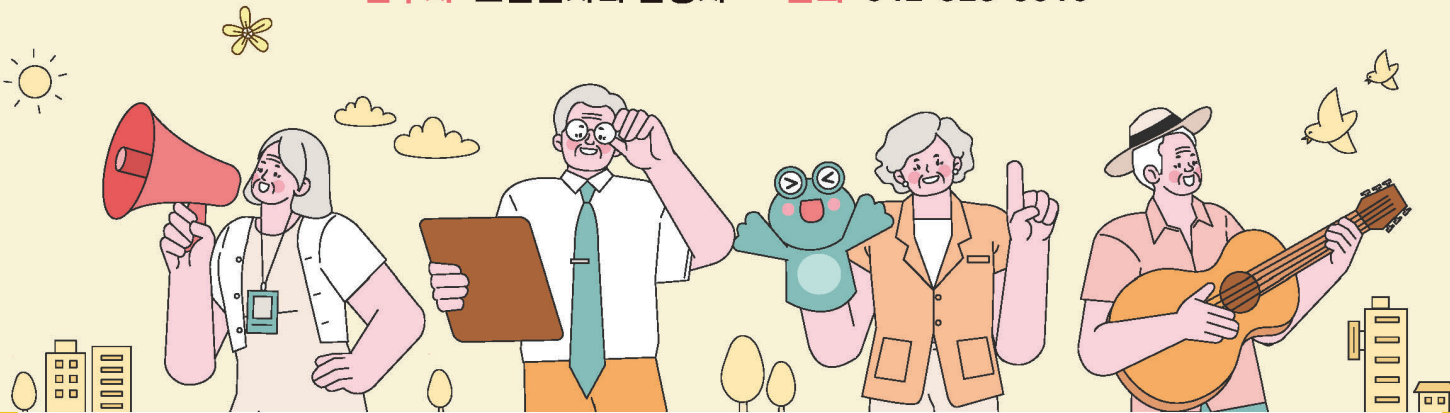
* 하반기 수강생 등록 상황에 따라, 강좌 개설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 마감 시까지 상시 상담 접수

접수처 노인일자리 담당자 문의 042-823-3916



유성이알림단

연극, 손인형, 그림자인형

유성지역에 관련된 설화, 구전
동화 및 역사적 인물, 사건을
인형극 및 연극으로 지역사회
알리는 공연활동

유성이전통단

전통놀이 활동

지역행사 및 장기요양시설,
보육시설 등으로 전통놀이체험
및 전수하는 활동

유성이행복단

악 단

노래(트로트), 전통무용, 댄스,
다양한 악기 등으로 구성된
악단으로서 장기요양 시설로
방문하여 활동

유성이합창단

합 창

다양한 지역행사 및 장기요양
시설 등으로 합창공연을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과 공감대 형성
하는 활동

문화재지킴단

비지정문화재 지킴

유성구 관내 및 시·도 기관과
협조하여 비지정문화재 청결
및 정보수집하여 보존 알리는
활동



유성문화원 시설 대관 안내



층	장소	대관료	사용시간	초과 시간당	기타	냉·난방
1층	전시실 112㎡(약35평)	27만원(9시~17시)	주간(월·화·수·목) 주말(금·토·일)		• 냉/난방, 조명 무료 • 전시 종료일은 5시까지 철거 완료 요망	무료
2층	다목적실 무대/좌석 80석/ 자유석 20석	36만원 53만원	오전 09시~13시 오후 13시~17시 종일 09시~17시		• 소형그랜드피아노 5만원 (피아노 조율비 사용자 부담) • 빔프로젝터, 음향, 무선마이크(3) (노트북 사용자 지참)	
3층	세미나실 좌석 50석 라운지실 무대/좌석 50석	15만원 16만원	3시간 기준	2만원	• 유선마이크(1) • 빔프로젝터(노트북 사용자 지참) • 유선마이크(1) • 이동식 빔프로젝터 3만원 (노트북 사용자 지참) • 소형피아노 3만원 (피아노 조율비 사용자 부담)	
4층	전통문화실 예체능실	13만원 13만원			음향 없음 음향 무료	



YUSEONG Cultural Center

유성문화원 표지 캘리협조
유성문화원 캘리그래피 강사 심혜순

발 행 인 이재웅
발 행 일 2025년 6월
등록번호 대전 라 01023
발 행 처 유성문화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46(궁동)
전 화 042)823-3915~6
팩 스 042)823-3917
홈페이지 www.yuseong.or.kr

문화유성

2025

Vol. 232

www.yuseong.or.kr

 유성문화원
www.yuseong.or.kr

34167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46(궁동)
Tel. 042-823-3915~6 Fax. 042-823-3917